

해찬들 약고추장, 돌려 따는 '스파우트 파우치' 포장방식 도입

메디컬투데이-2013. 12. 25.
[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]

CJ제일제당 해찬들의 편의형 볶음고추장인 '수라상에 올리던 약고추장'이 '스파우트 파우치' 포장방식으로 편의성을 높인다.

이번에 출시된 '수라상에 올리던 약고추장'의 120g 소용량 제품은 '스파우트 파우치'라는 새로운 방식의 포장 기법을 도입했다. 이 방식은 비닐주머니 형태와 돌림형 마개의 조합으로 구성됐다. 스파우트 파우치는 기존에 음료 등 액상 제품에서 주로 사용했던 방식으로, 국내에 출시된 대형 브랜드 장류 제품 중 유일하다.

이 제품은 특히 1인 가구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기대하고 있다. '다른 반찬 없이도 밥 한 공기를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고추장'이라는 제품의 특성에 맞게, 싱글족 소비자가 장기간 보관하지 않고 5~6번 정도의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용량(120g)인데다가, 돌림형 마개 때문에 보관과 사용이 편리하다는 점 때문이다.

기존의 튜브형 고추장에 비해 용량을 늘려 4~5명이 한끼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데다가, 무게가 가볍고 부피가 작아 휴대가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어 여행 등 특정 기간 동안 고추장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다.

CJ제일제당 해찬들팀의 박용철 과장은 "수라상에 올리던 약고추장'의 출시 콘셉트가 별다른 재료 없이도 간편하게 밥을 먹을 수 있는 고추장인 만큼, **고객의 편의성을 극대화**하기 위한 신 개념 포장 방식을 도입했다"라고 설명했다.



메디컬투데이 남연희 기자(ralph0407@mdtoday.co.kr)